

수소산업 미래인재 양성 ‘맞손’

전북대·완주군·국회 환노위·현대차 전주공장·수소에너지고 등 5개 기관, 협약 체결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수소 산업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과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수소에너지고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양오봉 총장과 안호영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장, 유희태 완주군수, 장현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 송현진 수소에너지고 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계 기관은 수소 분야 계약학과 개설을 추진하고, 지역·산업·학계·연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계획에 따라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고,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양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은 관련 예산 편성과 입법 활동을 지원하며, 완주군은 산업 기반을 구축해 최적의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 현대차 전주공장은 교육과 특강,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전북대는 전국 최초로 설립된 수소에너지고와 함께 고교-대학 간 계약학과를 설립해 지역 정주형 수소 전문



3일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수소 산업 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린 가운데,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유희태 완주군수 등 관계자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해 미래 수소 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고졸급 영마이스터 수준부터 석·박사 R&D 수준까지 지역정주형 수소 전문 인력양성 체계를 통해 우리 지역의 수소 산업 밸류체인이 구축되고 있다”면서 “전국 직업교육의 선도 모델이 돼 지역과 수소 산

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은 “전국 최초로 설립된 수소에너지고가 수소 산업을 선도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지역 정착형 인력 육성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장현구 현대차 전주공장장은 “수소 인재 양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진 수소에너지고 교장은 “전북대와 함께 미래 수소 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완주군이 수소경제 1번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올해 438명 학교안전지킴이 위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자 438명의 학교안전지킴이를 위촉한다고 3일 밝혔다.

학교안전지킴이는 각 학교장이 공모 과정을 거쳐 위촉된다.

올해는 지난해 368명에서 70명 늘어난 438명이다.

이들은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등·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교내·외 순회지도 등을 수행한다. 특히 이들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는 원하는 학교에 위촉 여부를 문의해 응모하면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학교안전지킴이 활동은 매우 보람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힘써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주요 정책 학교 현장에 잘 스며들어야”

서거석 교육감, 전략회의서 “변화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준비도 철저히”

“전북교육청의 주요 정책이 학교 현장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3일 열린 전략회의에서 “학교에서도 새로운 학년도 교육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해질 시간”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관련해 “지난해 평가에서 제외됐던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도 포함돼 올해는 초 3부터 고 2까지 전 학년이 평가를 받게 된다”면서 “학교에서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교육감은 “연휴 기간 폭



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열린 전략회의에서 서거석 교육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설로 인한 시설물 피해는 없는지 잘 점검해서 새 학년 시작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금길

‘2036 하계올림픽, 전북에서’

강희성 호원대 총장, ‘GBCH’ 챌린지 동참

호원대학교 강희성 총장이 2036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대 양오봉 총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를 참여하게 된 강희성 총장은 “2036 하계 올림픽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유치된다면, 지역의 발전과 함께 국가 균형 발전 및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호원대

학교도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성 총장은 챌린지의 다음 참여자로 군산대학교 이장

호 총장과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을 지명했다.

한편 호원대는 이번 챌린지를 대학의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과,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에 게시물을 업로드 했다. /장은성 기자

올해 디지털 기반 유치원 10곳 시범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유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기반 유치원 운영 지원 및 유치원 미래교육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디지털 기반 유치원 운영 지원은 올해 시범 사업으로 2월 중 공모를 통해 공립유치원 5개원, 사립유치원 5개원 등 총 10개 유치원을 선정, 원당 2,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기기, 디지털 교구 등 놀이중심 디지털 활용 수업, 인공지능(AI)·증강현실(AR)을 활용한 체험형 놀이 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수 있다.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컨설팅

과 모니터링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를 위한 수업 공개 및 협의회는 연 2회 필수적으로 운영해 교사 역량 강화와 디지털 시민성 소양 함양을 도모한다.

이어 유치원 미래교육 운영 지원은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및 유치원별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생태·환경놀이, 디지털 기반놀이, 함께 가치놀이(민주시민교육) 등의 주제를 통해 유아들이 미래사회와 지구생태계의 변화 속에서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은성 기자

“보호받아야 할 가정서 학대행위 엄벌해야”

전북교총, 중학생 의붓아들 폭행 사망사건 관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학생 의붓아들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냈다.

먼저 전북교총은 “폭행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소중한 아동의 죽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한다”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호받아야 할 한 아동이 가정 내에서 폭행으로 인한 외상 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감까지 감내해야 했을 것”이라면서 “유관기관의 철저한 사안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의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지난 10월 아동학대 정황이 의

심돼 아동학대 신고를 했고, 결국 ‘아동학대’로 판정받았다. 하지만 추후 모니터링이나 분리 조치같은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아동학대 판단 이후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아동의 안타까운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에 전북교총은 “학부모의 민원이나 여론이 두려워 가정 내 학대 사례는 쉬쉬하고 있다”며 “학대로부터 목숨까지 위협받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련 부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